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내년 지방선거 누가뛰나 ▶4~7
추석연휴 문화나들이·생활 정보·극장가·F1 ▶11~15
추석연휴 TV 프로그램 ▶23~25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575호 1판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음력 8월 13일)

광주일보 추석테마 사랑과 소통의 출발점…가족이 희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여수 '한지붕 4代' 정병수씨 가족의 끈끈한 추석

가족을 만나고 고향산천을 볼 수 있는 1년에 몇 안 되는 기회, 한가위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한 편이 먹먹해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눈에 가득찼다. 돌아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악전고투하며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겁던 시간이었다.

언제든 살갑게 맞아주는 가족이야 말로 모든 힘겨움을 녹여주는 마법과도 같다. '불통의 시대' 가족은 사랑과 소통의 출발점이다. 그들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은 희망이다. 광주일보는 추석을 맞아 가족간 소통 실태를 들여다보고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오손도손 행복 4배 "부러울게 없어요"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여수시 화양면 백초마을의 정병수(55)씨 가족이 추석을 사흘 앞둔 16일 수 대째 살아온 고향마을 논에서 포즈를 취했다. 오른쪽부터 정씨, 정씨의 어머니 정동금(86)씨, 부인 정보엽(49)씨, 며느리 이슬비(25)씨, 아들 삼권(24)씨, 그리고 손녀 민서(3)양.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을 앞두고 아버지는 언제나 방긋 웃고 있다. 외지에서 고생하는 딸과 흩어져 객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미소부터 번진다. 25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고된 농사일과 팔순을 넘긴 어머니 수발, 자식과 태어난 손자의 뒷바라지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가장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서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5시간을 일하고 밤 10시도 되기 전에 스르르 눈이 감긴다는 여수시 화양면 백초마을 정병수(55)씨. 지난해 크론병으로 고생한 아들 삼권(24)씨가 대학생이던 지난 2010년 며느리 이슬비(25)씨를 만나 손녀 민서(3)를 낳으면서 그는 할아버지가 됐다.

어머니 정동금(86)씨, 부인 정보엽(49)씨, 맏딸 지영(27)씨, 외지에서 살고 있는 둘째딸 나래(25)씨 등 모두 7명이 그의 가족이다. 정씨 가족처럼 '4대'가 함께 사는 것이 드물고 손녀 민서는 78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유일한 '아가'이기도 해 이웃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제가 3남3녀 중 장남인데, 어머니가 이곳에 계셔서 명절이면 30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정신은 없지만 좁은 집에서 부대끼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2년 전 막 걸음마를 시작하던 손녀를 위해 1945년 한국전쟁 당시 지어진 집의 마루를 없애고 거실을 만드는 등 완전히 뜯어고쳤다. 지난해에는 삼권씨가 갑자기 아파 치료비로 거액이 들어가기도 했다. 당뇨와 혈압이 있는 어머니도 최근 부쩍 쇠약해져 걷기조차 어렵다. 걱정거리가 있을 법도 하지만, 그는 "힘들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얼굴보고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아들도 이제 거의 회복됐으니, 하고 싶은 일 하면 될 것이고, 이런저런 일로 돈이 좀 나갔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면 될 것 같네요."

정씨가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가 남겨준 땅을 자신의 대에 더 넓혀놨다는 것이다. '팔 수도, 팔 이유도 없는' 이 땅을 자식 대까지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곧 후대의 든든한 밑천이 돼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궈놨는데 다른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 뿐이에요." 아들 삼권씨의 말이다. 앳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며 집에서 30분 거리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계를 돕고 있다.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죠. 둘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고생해야죠. 뭐." 그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한마디 거든다. "아이고, 무슨 여행이요. 이 양반하고 어디 가봐야 재미가 있겠어요? 어머니와 같이 가면 모를까."

부지런한 정씨는 조생종 벼를 심어 이미 거둬들이고 '택사'라는 약초를 심어 키우고 있다. 이 약초가 다 자라 내다 팔면 보리를 심는다. 160cm가 조금 넘는 키에, 60kg도 안 될 것 같은 깡마르고 왜소한 그지만,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어머니를 정성스레 모시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도 또 그렇게 할 것이며, 그 자녀 역시 그럴 것이다.

양보와 희생으로 서로 보듬고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어 '정씨네' 한가위에는 언제나 그렇듯 희망의 보름달이 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복 입고 송편 빚고…이주여성들의 추석 16일 광주시 서구 세하동 한옥문화체험관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추석 상차리기 행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필리핀·중국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이 빚은 송편과 음식을 차례상에 올려 놓고 환하게 웃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朴대통령 "蔡총장 감찰 해야할 일 한 것"
김한길 "많은 얘기 했지만 정답 없었다"

3자회담 합의없이 끝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30여분 동안 3자회담을 갖고 정국과 민생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관련기사 8면〉

이날 3자 회담은 애초 예상대로 '국회 정상화'로 민생 법안 통과를 주장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입장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및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해온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입장이 맞서면서 대치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담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전 정권의 일"이라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맞서는 등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직후에도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많은 얘기가 오갔으나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야당에 얘기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 추석 연휴 광주·전남 날씨

17(火)	18(水)	19(木)	20(金)	21(土)	22(日)
맑음	맑음	맑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구름 많음
17/30	19/30	18/29	18/28	19/28	20/28

추석특집호 28면 발행…18~22일자 신문 쉽니다